

# 홍이삭 “뮤지컬 배우 도전…제 음악 더 깊어질 것 같아”

“이번 뮤지컬은 성공적인 탐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저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32)가 가수에서 음악 감독에 이어 이번엔 뮤지컬 배우로 나섰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 ‘올 댓 상하이’에서 음악전재 ‘니에얼’ 역을 맡았다.

다양한 음악 카테고리를 섭렵해온 홍이삭과 안성맞춤 캐리커다라는 평가다.

2013년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봄아’로 동상을 받았다. 버클리음대 음악교육과에 입학했고 2015년 발매한 싱글 ‘하나님의 세계’로 주목 받았다.

2016년 초반에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너목보2)에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같은 해 대학로에서 공연한 뮤지컬 ‘러브 트립로지: 청춘’의 넘버 전곡을 작곡했다.

특히 작년 종합편성채널 JTBC ‘슈퍼밴드’를 통해 팬덤을 형성하던데, 올해는 음악영화 ‘다시 만난 날들’의 주연과 음악감독까지 맡았다.

최근 서면으로 만난 홍이삭은 “이 뮤지컬을 하고 나면 아마 저의 음악도 조금 더 깊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된다”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의미들이 생기기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너목보, 슈퍼밴드 모두 제게 큰 전환점이예요. 버클리에서는 ‘내가

## ‘너목보2’ 가수로 눈도장

## 창작 뮤지컬 ‘올 댓 상하이’

## 음악전재 ‘니에얼’ 역 맡아

음악을 아주 못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했죠. 유재하음악 경연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좋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너목보’와 ‘슈퍼밴드’는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제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 인상적인 홍이삭은 어릴 때 교회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음악이 재미있다고 느낀 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에서였다.

초등학생 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간 그곳의 교회 밴드에서 신나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형·누나들을 보면서 ‘즐거움 음악’을 처음 접했다. ‘나도 저렇게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자연스레 솔풍한 보컬이 만들어졌다. ‘너목보2’ 출연 당시 ‘원시 숲’이라는 별칭은 괜히 붙여진 것이 아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제게 이상향을 보여준 곳이에요. 음악적인 영향을 넘어서 정서적인 것과 삶의 태도 등에 큰 영향을 줬죠. 그렇게 살면서 음악도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다시 만난 날들’은 뮤지컬 ‘러브 트립로지: 청춘’이 바탕이다. 영화



의 감독, 뮤지컬의 연출 모두 홍이삭의 학교 선배인 심찬양이 맡았다.

그저 영화의 음악 작업은 뮤지컬 음악 작업의 결과 비슷했다. “재미있는 건 연기에 대해서 모두가 큰 기대가 없었고 저도 슈퍼밴드 방송이 끝난 직후여서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게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것을 잘 끌어내주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작년 말에는 솔로 EP ‘놓치고 싶지 않은 사소한 것들’도 발매했다. 바쁘고 정신 없는 시간에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만든 앨범이다.

1920~30년대 동양의 파리, 동양의 할리우드라 불린 중국 상하이 배경인 뮤지컬 ‘올 댓 상하이’는 그 속에서 성공한 예술가들의 우정

과 사랑, 고뇌와 아픔을 그린다. 중국의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 김엽과 왕란메이, 그리고 니에얼이 중심이다.

홍이삭은 중국 애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작곡한 니에얼 역을 맡아, 뮤지컬 배우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홍이삭은 “연기에 대해 많이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기’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구하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과 철학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흡수할 생각에 많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뮤지컬의 매력에 대해서는 “결국 배우들이라고 생각했다. ‘무대 연기의 신세계를 발견하면서 제게는 어느때보다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고 긍정했다.

“무대 위에서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대화, 호흡 등 작은 것이라도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사람 자체가 가지는 힘에 대한 매력을 실감하고 있죠.”

최근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OST ‘클로즈 유어 아이즈’ 작업에도 참여한 홍이삭은 막히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장르 구분 없이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하다보니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저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보컬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것이 재밌기도 해요.”

한 때 CCM(대중음악 형식을 취한 기독교 음악) 가수로도 인식됐던 홍이삭의 현재 음악 작업은 종교에 얽매어 있지 않다. 역시 균형감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걸까.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균형감을 정리하고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이미 끝났죠. 오히려 저를 모르는 주변 분들이 기독교인 분들이 균형감에 대해 오히려 저 대신 고민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하.”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를 모두가 통과하는 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 댓 상하이’ 개막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시간들은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작업들과 만남들이 어느 때보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지지치 않고 오랫동안 행복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길 바라요.”

# 조윤희, 이혼 9개월만에 안방극장…“유기동물계 수호천사”

## SBS ‘동물농장’ 제999회 스페셜 MC 출연



배우 조윤희가 이혼 9개월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조윤희는 13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물농장’ 제999회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동엽은 “‘동물농장’에서 언

젠가는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게 됐다”고 조윤희를 소개했다.

“동물농장” 애청자 조윤희는 “꼭 빠진 게기가 있다”며 “애니멀커뮤니케이터 하이드 시리즈 보고 동물과 교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고 밝혔다.

토니안은 “조윤희 씨가 유기동물계의 수호천사”라며 “드라마 촬영하는 길에 교통사고 당한 유기견을 직접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자비로 수술까지 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희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강아지를 키웠다”며 “둥이”라는 이름의 시츄였는데 10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둥이한테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유기견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윤희는 지금까지도 유기견 14마리를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정선희는 “참 좋다”며 “저게 정말 힘든 건데, 마음이 아프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다 감내한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칭찬했다.

조윤희는 “많은 유기견이 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기덕 별세에 ‘조용한 영화계’

## 감독조합 등 공식 추모입장 없어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내 영화계는 공식 추모입장 없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개인적인 추모 글은 이따금 발견되지만 영화계 주요 단체의 애도 성명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김 감독의 미투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2일 “김 감독은 조합 소속이 아니다”라며 “비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프로듀서조합, 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단체연대회의 등 영화계 주요 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김 감독이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소했을 때 “2차 가해를 멈추고 자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추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 ‘기생’의 영어자막 번역가로도 유명한 영화평론가 달시 파켓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누군가 실제 삶에서 그런 끔찍한 폭력을 사람들에게 저질렀다면 그를 기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한국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 영화평론가 피어스 콘란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화에 대한 그의 공헌은



잊혀서는 안되겠지만, 그의 괴물과도 같은 성폭력의 희생자들 역시 잊혀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전날 별세 소식을 듣고 추모글이나 애도 성명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호응이 좋지 않았다”며 “미투 논란 등으로 다들 언급하기 꺼려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고인은 2017년부터 여배우 폭행과 성폭력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2017년 여배우 폭행 혐의로 고소돼 이듬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전 세계적인 ‘미투’ 파문 속에 그와 영화를 함께 했던 여배우·스태프들이 각종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김 감독은 방송사와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해 검찰은 방송사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뒤 김 감독은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2017)을 끝으로 한국 영화계를 떠나 줄곧 해외에서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올해는 카자흐스탄에서 ‘디졸브(Dissolve)’라는 러시아어 영화를 촬영했다.

# 방탄소년단, ‘더팩트뮤직어워즈’ 4관왕…3년 연속 대상

## 대상 비롯 올해 아티스트·월드 와이드 아이콘상·리스너스 초이스상 등 총 4관왕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년 연속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의 주인공이 됐다.

방탄소년단은 12일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 올해의 아티스트, 월드 와이드 아이콘상, 리스너스 초이스상 등 총 4관왕을 안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이 시상식 1회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리더 RM은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각자 작업실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음악 하는 아티스트들이 계신다”면서 “그분들을 대신해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잊지 않으면서,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정진하며 음악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이달 들어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멜론뮤직어워즈 2020’(MMA 2020)에서 대상 3개 부문을 모두 차지하며 6관왕,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MAMA)에서도 2년 연속 대상 4개를 모두 싹쓸이하며 8관왕을 안았다.

내년 1월31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가 트로피 사냥 고지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원조 한류 그룹 ‘슈퍼주니어’도 선정됐다. 올해의 아티스트상, TMA 팬 인기상, 팬앤스타 최다득표상을 받았다.

올해의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과 슈퍼주니어 외에 트와이스, 갯세븐, 뉴이스트, 세븐틴, 몬스타엑스, 마마무, 화사, 강다니엘, 아이즈원 등이 선정됐다.

올해 대세 그룹으로 떠오른 세븐틴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월드 와이드 아이콘상도

받았다. ‘미스터 트롯’의 스타 임영웅은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 팬앤스타 애즈닷컴상을 받았다.

한류스타로 떠오른 황지열도 팬앤스타 최다득표상, 팬앤스타 초이스상(개인)을 안았다.

신인상 격인 ‘넥스트 리더’로는 위클리, 크래비티, 엔하이픈이 선정됐다.

지난해 넥스트 리더였던 이지희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올해 베스트 퍼포머로 뽑혔다. 대세 래퍼 제시도 베스트 퍼포머가 됐다. ‘글로벌 핫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 (여자)아이들, 더보이즈, 에이티즈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번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출연자, 스태프 온도 체크는 물론, 공연장 모든 출입구에 방역게이트 등을 설치했다.

# 곽시양, ‘홍천기’ 수양대군 역 출연

배우 곽시양이 SBS TV 새 드라마 ‘홍천기’에 캐스팅됐다.

소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는 12일 “배우 곽시양이 드라마 ‘홍천기’의 수양대군으로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천기’는 조선시대 유일한 여화공 홍천기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덧입혀진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등을 집필한 정은경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등을 만든 장태우 PD가 연출을, 하은 작가가 극본을 맡는다.김유정과 안호섭 등이 출연한다.

곽시양은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될 자라 확신하며 훗날 세조가 되는 길을 잔인함으로 수놓을 수양대군으로 국을 이끈다. 숙명에 사로잡혀 내면의 폭풍우를 안고 사는 인물로 목격한



카리스마와 밀도 있는 감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내년 방송 예정이다.